

교토부 교탄고시 우카와에서의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 저지! 동아시아에서의 미사일 방위망(MD) 확장 반대!

미군X밴드레이더기지반대 교토 연합회
2014년4월1일

2013년2월22일 미일정상회담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는 미국의 MD 시스템 일부인 X밴드레이더 일본 추가 배치에 관해 합의했다. 이 레이더와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미일 정부는 교토부 교탄고시 우카와에 새로운 미군 기지를 건설하려고 한다. 이는 미일군사 일체화를 추진하여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확대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X밴드레이더란?

X밴드레이더란 미국 미사일 방위망(MD) 일부이며 THAAD미사일(중말고고도방위 미사일)이라는 최신 요격미사일을 위한 레이더이다.

미군X밴드레이더는 미군 재편계획 일환으로서 2006년 일본 북부 아오모리 현 쓰가루시에 있는 자위대 샤리키 기지에 일본 국내에서 처음으로 배치되었다. 단고반도 끝에 위치하는 우카와 지구에 대한 배치계획은 그에 뒤잇는 두 번째 것이다. 2014년 3월 4일 미 국방부가 공표한 '4년마다 국방 태세 재검토' (QDR)에 의하면 그 목적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 경계 및 탐지'로 된다. 즉 북한에 대한 전쟁 태세 마련책 일부다. 샤리키 레이더는 하와이를 향하는 미사일을, 교가마시키에 배치될 예정인 것은 주로 괌 방면에 가는 미사일을 더 앞에서 포착하기 위한 것으로 되고 있다. 자위대도 레이더가 잡은 정보를 공유하며 필요하면 요격하게 될 것이다. 현대 전쟁에서는 레이더와 그것이 포착하는 정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라크 침략 전쟁 때도 미군이 개전과 동시에 이라크군 레이더를 파괴했다.

■미군 병사 및 군속 160명이 주둔할 새로운 미군기지

일본 방위성의 설명에 의하면 레이더는 우카와에 있는 항공자위대 교가미사키 분둔 기지에 배치될 예정이다. 그런데 레이더를 기동시키기 위해서는 그뿐 아니라 제어설비, 전원설비, 냉각설비 등 관련설비 설치가 필수다. 그래서 미군은 용지를 취득하고, 새로운 미군 기지를 만들려고 한다. 더불어 자위대기지 자체 확장도 검토 중이다.

건설 예정인 미군 기지에는 군인과 군속 약 160명이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방위성에 따르면 그 대부분이 민간 기술자와 경비원일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거의 거짓말이다. '경비원'은 민간군사청부회사에서 파견되는 용병이다. 미군이 저지른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미군과 함께 미국 민간군사청부회사인 블랙워터사 용병이 한 민간인학살이 큰 비난을 당했다. 지금 아오모리 현 샤리키촌에 있는 X밴드레이더 기지 경비를 맡는 회사는 블랙워터의 관련회사다.

■'우카와'는 어떤 곳인가?

교토부 교탄고시 우카와는 단고반도끝단 가까이에 위치한다. 거기서 약650가구, 1700명이 작은 취락 14군대에서 산다. 그 중 소데시와 오와라라는 취락이 미군기지 건설 예정지에 가장 가깝다. 대부분 사람들이 농업이나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과소화가 진행되어 고령자 인구가 많다. 그러나 주민들은 풍부한 자연 속에서 평화스러운 삶을 누린다.

우카와에는 지질학적으로도 귀중하고 아름다운 해안선이 있고 기지 건설 예정지 부근에는 훌륭한 계단식 논이 있다. 또 주변에는 절멸위구종인 매 등 희소생물이 서식한다.

한편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이 진 직후부터 미군정 아래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마을

장르 중에는 당시 미군의 방행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다.

■ 미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

첫째, 미국 미사일 방위망(MD) 확장인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 계획은 반드시 동아시아 군사 긴장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계획이 전쟁과 파괴에 관한 공포를 주민들에게 주며 단고반도를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최전선으로 둔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그것이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시키며 미일 군사 일체화와 일본 집단적자위권 ‘합헌’ 즉 침략전쟁 태세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미군 기지라는 존재가 병사와 군속으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피할 수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이 우카와의 귀중한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이 계획이 서 일본 지역에서의 군사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미군과 일본 방위성

일본 방위성은 작년 11월 이후 미군 대신에 미군기지 건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주해 왔다. 땅소유자과의 땅 임대차 계약 교섭을 억지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한 명을 빼고 모든 땅소유자들이 작년 12월말 땅 임대차계약에 합의했다. 계약은 1년 갱신이다. 방위성은 바로 땅을 미군에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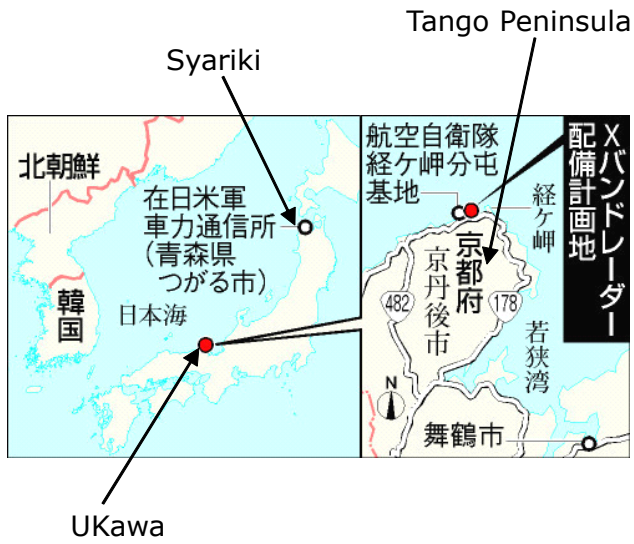
보도에 의하면 미군은 올해 4월에 기지 건설공사를 착공하려고 한다고 한다.

■확대되는 우카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

우카와 주민들은 대부분 미군 기지를 반대한다. 이들은 미군의 범죄와 사고, 레이더가 낼 전자파가 건강이나 농업 및 어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많이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작은 취락에서 인간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고 공공연히 의견을 내지 못했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미군기지 건설을 우려하는 우카와 주민 모임’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기지건설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현지 상황이 바뀌고 있다. 지난 2~3월에 실시된 기지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 활동에 유권자 과반수를 넘는 서명이 모였다.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 숫자다.

교토시에는 2013년 7월 ‘미군 X 밴드레이더기지반대 교토 연합회’가 결성되어 ‘우카와 주민 모임’과 연대하면서 서명활동, 방위성 오사카 사무소나 교토부 당국에 대한하는 요구사항 전달, 집회나 가두행진 등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교토연합회는 우카와에서 유인물 배포와 집집마다 방문해서 이야기하는 설득 활동도 한다. 작년 11월에는 교토, 오사카, 시가, 나라, 효고 등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미군 X 밴드레이더기지 반대 긴키(=간사이) 연합회’가 발족되었다. 지금 우카와 주민들의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 반대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



Range of the X-band radar

施設等の展開計画(案)

別 4



Planned construction site of the new US base

